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5월호

통권 제 147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4월 교우소식

새 교우

♣ **차복자씨(49년생)** : 차복자씨는 1990년대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이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회출석을 못하게 되었다가 이번에 곽양금집사의 인도로 다시 출석하고 등록하시게 되었다. 안산에서 살고 계시지만 압구정동에있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곽양금집사와 함께 3교구 6구역에 소속되어 있고 교구장인 고옥희 권사의 돌봄을 받고 있다.

♣ **윤철성씨(42년생)** : 윤철성씨는 그동안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고 친정도 불교신앙이 깊지만 곽양금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 직장생활을 하시느라 등록심방을 받지 못했지만 4월 첫주에 등록한 이후 꾸준히 교회출석을 하고 있으며 교구장이 열심히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 **이주석씨(71년생)** : 이주석씨는 서울시 구로구 궁동 한신 에버빌 302호에 사신다. 집근처교회인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정독도서관에 다니면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다가 스스로 등록하였다.



♣ **김옥선씨(49년생)** : 서대문구 연희동 413-98번지에 사는 김옥선씨는 유연준권사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 조선족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사진왼쪽부터 담임목사님, 윤철성씨, 차복자씨, 곽양금집사)



이 사

★ 김금희집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19-29 LG 타운 A동 302호

★ 김홍석집사, 강동구 둔촌1동 180-1 주공(아) 416동 803호 (☎ 470-8249)

감 사

★ 김병진집사 한인수권사, 지난 주일(10일)과 농목연(18일) 점심 식사대접

별 세

★ 서원갑성도(79세, 박선숙집사 모친), 3일 별세하여 5일 장례. 장례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구학목사가 집례하였다.

★ 임영자성도(65세, 임중규장로 누나), 24일 박병욱목사 집례로 병상세례를 받았고 25일 별세하여 27일 장례. 장례예배는 박병욱목사가 집례하였고, 본교회 한소망찬양대가 함께 참석하여 조가를 불렀으며, 장지인 풍산공원묘지에서 하관예배는 이성철목사가 집례하였다.

결 혼

★ 김종현군(김창희·김혜경집사 장남), 23일(토) 오후1시, 엘루이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환 자

★ 손민호군(이경복집사 아들), 강릉 육군통합병원 2병동.

제 168회 서울노회 개최

4월 21일 본교회에서 제168회 서울노회가 개최되었다. 오전 9시에 서울노회 노회장인 본교회 이효종장로의 사회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본교회 이본장로의 기도와 한솔찬양대의 찬양이 있었고 연동교회 원로목사인 김형태목사가 개회예배 설교를 하였다. 개회예배 후 성찬식이 있었고, 오전 회무처리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에는 각부 및 위원회 보고와 한남대 부총장인 김형태박사가 “크리스찬 :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의 특별강좌를 하였다. 이후 목사임직식, 총회

총대선거, 폐회예배로 봄 노회는 막을 내렸다.

이번 노회는 회의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소가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등 전교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봉사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친교봉사국 헌신예배

4월 10일 오후예배는 친교봉사국 헌신예배로 드렸다. 이날 예배는 과주 교하의 하늘샘교회 담임목사인 신성진 목사가 사도행전 6:1-7의 성경 본문과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친교봉사국장인 김혜자권사가 예배의 사회를 보았고 친교봉사국 고문인 장문자 장로가 대표로 기도를 하였다. 예배 후 간단한 다과회를 하면서 공동체의 친교를 나누었다.

친교봉사국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장 : 김혜자권사 고문 : 장문자장로

친교봉사부 부장 : 최명자 전덕길 박병례 김연숙
농촌목회연구원 봉사부장 : 강춘자 문영임

<늘푸른교실>

총무 : 김연숙B 서기 : 문경순집사 회계 : 장미화

주방 : 조정순집사 김순희 김옥분 김정단 문유심
전혜정

위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4월 3일 2부 예배 후 박병욱 목사의 위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다. 총 투표자 307명 중 찬성 288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박병욱 목사를 본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를 노회에 헌의하여 이번 노회에서 위임허락을

받았다. 위임식은 오는 6월 12일(주일) 오후 3시에 거행할 예정이다.

청년부 총동원주일

청년부에서는 4월 3일 주일 2시에 예배팀의 찬양으로 첫번째 청년부 총동원 주일을 시작했다.

약60여 명이 참석한 총동원주일 행사는 평상시 청년부 찬양 예배와는 다르게 새로 나온 청년들과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을 위해 공연형식의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배팀의 찬양에 이어 김바울 형제의 간증이 있었고 간증 후에는 이성철 목사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이날 청년들은 박정희 집사외에 여러 집사들이 준비해준 샌드위치와 주먹밥 등을 같이 먹으며 오랜만에 나온 형제 자매들 그리고 새로 나온 형제 자매들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음식을 먹으면서 4월달 생일을 맞은 형제 자매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배규상 형제와 김에녹 형제의 사회로 레크레이션 및 상품권 추첨으로 선물을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교회청년의 헌신을 다짐하며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흩어진 청년들을 다시 모으며 한마음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청년이 되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늘푸른교실 봄 나들이

늘푸른교실에서는 4월 20일 안면도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전체 86명이 버스 두 대에 나눠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였다. 8시 30분 헌법재판소앞에서 출발한 버스는 서해안고속도로를 거쳐서 시원한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구회숙목사의 인도로 백사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백사장교회에 헌금을 하였는데 총 10만 8천원을 헌금하였다. 비치하우스에서 조개탕으로 점심을 먹고 꽃지 해수욕장에서 할매 할배바위를 구경하였다. 당초 안면도 자연휴양림 관람과 산책을 예정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자연휴양림은 가지 않고 녹차 해수탕에서 목욕을 하며 치킨 몸을 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많은 교우들이 떡과 음료수, 금일봉으로 후원을 해주어서 늘푸른교실 어르신들을 접대해주었다. 박정음장로가 떡 2말 반을 준비해주었고, 김혜자권사가 5만원을, 황금석집사가 어머니를 기억하며 박카스 100병을 제공하였다. 또한 성경공부 <제자훈련반>에서도 10만원을 봄나들이를 위해 제공하였다.



청년부·중고등부 체육대회

청년부는 4월 둘째주에 대동상고 운동장에서 발야구, 피구, 농구, 계주를 하며 체육대회를 하였다.

또한 한가람 남선교회와 함께한 족구시합은 더욱 의미를 깊게 하였다. 체육대회 후 거북정에서 청년부 부장인 이정배집사가 삼겹살 파티를 열어 주었다.

중고등부는 넷째주에 덕성여고에서 축구, 피구 등을 하였다. 체육대회를 마친 청소년들에게 교사들은 삼겹살을 준비하여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교사대학 2강

4월 17일 올해 두 번째의 교사대학 강의가 있었다. 강의에는 이성철목사가 “기독교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총회 교육지원부의 새교사대학 과정의 한 과목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다. 이날 교사대학강의에는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모여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철목사는 강의를 통해 기독교교육의 개론적인 개념정의와 안동교회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중심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1) 교육에 대한 일반적 정의, 2) 기독교교육에 대한 정의, 3)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요소 4) 어떤 사람으로 가르칠 것인가 등이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을 통해 기독교교육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명하였다.

이는 1)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속에서 2)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인식하며 3) 역사 및 자연과의 관계속에서 책임적 삶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차원까지 함께 다루어지는 교육이다.



소허당 문화강좌

2005년 상반기 소허당 문화강좌의 국내성지탐방반은 매주 화요일 모여서 진지한 강의와 토론, 생생한 현지탐방을 하고 있다. 봄학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

- 1) 오리엔테이션-한국교회 역사, 왜 공부해야 하는가?
- 2) “한석진과 언더우드”-모교회 역사에 대한 관심의 시작
- 3) “한국교회와 여성”-이땅 여성의 하나님 나라 건설
- 4) “우리 헌정사 속에서의 한국교회” (1) 1895~1945
- 5) “우리 헌정사 속에서의 한국교회” (2) 1945~현재
- 6) “한국교회의 분열과 통합” - 한국개신교회사

의 다이내미즘(Dynamism)

<답사>

- 1) 3/22 기독교유적답사(1) “개화와 선교의 요람”-서울지역 답사
- 2) 4/12 기독교유적답사(2) “잊혀진 선교성지“ 인천답사
- 3) 4/26 기독교 유적 답사(3) - 청주(충북)지역 선교의 흔적들
- 4) 기독교 유적 답사(4) - 호남선교 일번지 “온고을(全州) 탐방”
- 5) 5/24 기독교유적답사(5)-선교구의 분할협정의 산물 강원도 원주지역

봄맞이 환경꾸미기

예배국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교회앞의 작은 정원에 새롭게 꽃을 심고 가꾸면서 환경꾸미기를 하였다. 미화부 부장인 김소진집사가 조경계획을 짜고 장문자장로, 오군자권사, 홍세진권사, 김혜자권사, 최현옥집사등이 참여하였다.

주차장 옆과 교회앞에 작은 꽃을 사다 심었고 교회앞 벽에는 벽걸이 화분을 걸어서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교회앞 벤치는 누구나 쉬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라고 쓴 패를 새로 만들어 부착하였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서울노회 제168회 정기노회



서울노회 제168회 정기노회가
21일 안동교회에서 열렸다.

서울노회(노회장:이효종) 제1백68회 정기노회가 21일 안동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노회에서는 제90회 총회 부회장 후보로 이광선목사(신일교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총회 총대 선출과 함께 헌의안을 확정했다. 총대 선출은 전산카드를 이용한 전자투표로 진행해 소요시간을 줄여 회의 진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총회 헌의안은 △유안동의의 처리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규칙에 삽입할 것 △총회 모금결의는 회원 과반수나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서 추진할 것 △저비용 고효율의 총회 회의를 위해 일정 및 회의 진행방식을 조정할 것 △증경총회장이 부서장과 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금지할 것 △신대원 목연과정을 존속할 것 등이 결의됐다.

또 노회에서는 각 부서 및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추진 사업을 점검했다. 특별히 영락교회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화합하겠다"는 뜻을 밝힌 영락교회 일부 시무장로들의 의견을 수용해 일단 수습과정을 지켜본 후 향후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상의 조건부 조정방안이 채택됐다.

당초 영락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김태복)는 "5월 첫 주일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 찬반을 실시해

야 한다"는 안을 내놨으나, 역효과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자정 가능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수습전권위는 "사태 해결책으로 제안한 목사와 장로 동반 휴무제가 일부 당회원들의 반발로 사장 때 공동의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었다.

이 밖에 노회에서는 목사 12명의 안수식과 경신 중고 교목을 역임한 김종희목사의 공로목사 추대가 이뤄졌다.

본교단 62번째 노회 출범

포항·포항남노회 발전적 분립

포항노회가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6일 포항제일교회(김광웅목사 시무)에서 분립예배를 갖고,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로 발전적 분립을 했다.

총회 포항노회 분립위원회 주관으로 위원장인 손달익목사(총회 서기·서문교회)의 인도로 열린 이날 예배는 분립위원 김홍주목사(총회 정치부장·신답교회)의 기도와 총회장 김태범목사(삼덕교회)의 설교에 이어 분립선포 후 성경과 헌법, 노회록 및 고퇴와 직인 증정식을 갖고, 분립위원 손승원목사(울산제일교회)의 축사 후 증경총회장 이규호목사(경주구정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분립예배에 이어 포항노회는 분립예배가 열린 포항제일교회에서 제70회 총회를 속개했으며, 포항남노회는 포항중앙교회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다.

양 노회는 임원선거를 통해 포항노회는 노회장에 공병의목사(포항동해큰교회)를, 포항남노회는 노회장에 서임중목사(포항중앙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분립 후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부와 인장을 보관하게된 포항노회는 포항시 일부와 영덕 및 울진지역을 기반으로 완전당회 62개를 포함해 1백29개 교회에 목사 1백37명, 장로 2백87명, 세례교인 1만7천6백80명, 교인총수 3만2천1백8명으로 조정됐다.

포항남노회는 포항시 일부와 울릉지역을 관장하며 완전당회 47개를 포함해 73개 교회에 목사 93명, 장로 2백79명, 세례교인 1만7천6백57명, 교인총수 3만2천1백75명의 교세를 갖게됐다.

성결교회 첫 여성목사 탄생

기성총회 산하 서울을 비롯한 경인 중부 충청 호남 영남 등 국내 6개 지역총회는 지난 3월29일과 31일 각각 제10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역사상 첫 여성목사 37명을 안수하고 배출했다. 그러나 기성 지역총회는 이번 총회를 끝으로 창립 9년 만에 해산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역총회의 폐지는 지난해 열린 제98년차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29일 중앙성결교회(한기채목사)에서 열린 서울지역 총회는 여성 목사 11명을 포함해 모두 62명의 신입 목사에게 안수했다. 이날 교단 역사상 첫 여성목사로 안수받은 박남형목사(66세)는 "교단창립 1백주년을 앞두고 교단에서 공로를 인정하고 특혜를 베풀어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동안 은퇴교역자 수양관인 성락원 운영위원장으로 사역하면서 보훈병원과 잠실병원 등에서 40년째 목회해왔다.

한편 기성 총회는 이번 지역총회에서 모두 37명의 여성목사가 안수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4월 3일 2명의 여성장로가 탄생함으로써 교단창립 1백주년을 앞둔 2005년은 교단 내 양성평등을 이룩한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성장로는 조만간 2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성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안수받은 37명의 여성목사들은 평균 20년 이상 전도사로 시무해왔으며 △부교역자 16명 △선교사 4명 △기관사역자 10명 △단독목회자 7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 살림. 그리스도인의 책임"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김상해)는 지난 19일 2005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한국교회 인권 운동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인권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와 노회 사회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김상해목사의 인도로 개최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강연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안

별로 최영애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유인태의원(열린우리당), 정중훈교수(연세대)가 강연자로 참석해 각각 '2005년 인권현황과 과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과 현실', '총회 인권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각 강연마다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특히 국회 발의 중인 사형제폐지와 관련해 강연한 유인태의원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당을 초월해 1백7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하면서 "예장 통합 교단이 사형폐지를 위한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연 후에는 취지 설명과 함께 '2005년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도처에 여전히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고 지켜나갈 것"을 교계와 사회에 요청하고 사형제도 폐지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본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에서 발의 중인 사형폐지법안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형없는 종신형제도가 "어떤 면에서 사형제도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본교단의 입장을 선언문을 통해 분명히했다.

김상해목사는 "1970, 80년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출발했던 본교단 인권위원회가 한결같이 추구해 온 생명 살림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교회와 교인들도 생명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나가는 인권위의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도서 동북아시아 평화 염원



기독교한국장로회 독도순례기도단은 지난 13일 독도에 들어가 기도회를 갖고 동북아 평화를 염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김동원)가 독도순례기도단을 구성해 지난 13일 독도에 들어가 독도수호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했다.

김동원총회장 윤길수총무 김형철 경북노회장 등 31명의 순례단은 13일 오전 독도에 내려 관광객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줬으며, 기도회를 갖고 '독도는 우리땅'을 확인했다.

기장 총회와 기도회 참석자들은 독도기도회에 맞춰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동북아 평화유지를 염원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일본도 중국도 모두가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어 전세계 평화를 심는 일에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천황제를 중심에 둔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기독교의 기반 · 근대화의 초석"

(선교 120주년 특집,
언더우드 입국과 선교의 현대적 의미)

서정민/ 연세대학교 교회사 교수, 신과대학 부학장

4월 5일은 한국 최초의 복음선교사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감리교의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를 통해 내한한 1백2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들의 내한 당시 바로 그날은 부활절이었고, 이들 개척선교사들은 복음의 불모지에 사명자의 첫 발을

디딘다는 감격적 심정으로 그 역사적 순간을 증언하고 있다. 분명히 이들의 내한은 한국교회사의 시원이자 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첫 선교사 언더우드의 생애와 행적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초교과적이면서도 경건한 신앙전통을 지닌 가정환경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한 때 프랑스의 소년기숙학교를 다녔는데, 온 가족이 미국 뉴저지의 뉴더햄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언더우드는 그곳에 합류했다. 거기서 네덜란드 개척교회로 옮기게 되어 언더우드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중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가 다녔던 그로브교회의 메이븐(Maben) 목사는 총명하였던 언더우드를 특별히 아꼈는데, 그의 배려로 헤스브루크 소년학원에 들어가 공부하여 1877년에는 뉴욕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뉴욕대학 또한 그에게는 폭넓은 교양을 심어주기에 부족함 없었으며, 그 후 목회자와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 뉴브런즈윅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학교 경험을 쌓고, 여러 기독교 교파들을 접했던 언더우드는 어려서부터 서로의 차이를 조화와 관용으로 극복하는 유연한 태도를 체득할 수 있었다. 마침내 아시아 선교사를 꿈꾸던 언더우드는 미 북장로회 한국선교사로 임명되었고, 1885년 4월 일본을 거쳐 내한하였다. 당시 주한 미국 공사관의 의사였던 알렌(H.N.Allen)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자 의학교였던 제중원(개명 전까지는 광혜원<廣惠院 designtimesp=1063>)을 설립 중인 상황이었다. 이후 언더우드는 제중원(濟衆院) 의학교의 일을 돕는 것으로서 그의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이미 한국에 오기 전, 1년간 의학 공부를 해 두었기 때문에 제중원의 업무를 도우며 한국에 적응해 갈 수 있었다. 약제사로 봉사하며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던 그는 1886년 3월 29일부터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말로 '물리'와 '화학' 과목을 강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에 서툰 알렌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한국말을 익혀나간 언더우드는 쉽게 학생들과 가까워졌으며, 결국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영어 교사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결국 제중원에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실질적인 전담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언더우드였던 것이다. 제중원

에서 교육과 선교 활동을 시작한 언더우드는 1886년 고아기숙학교인 '언더우드학당'(경신학교)을 설립하면서, 이후 한국 최고의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인 연세대학을 설립할 준비를 착착 진행시켰다.

언더우드는 세브란스 의학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던 1906년부터, 서울에 초교파적인 기독교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점차 실천에 옮겨 나가기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자신이 설립한 경신학교를 비롯하여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제중원(세브란스) 의학교, 감리교의 배재학교 등을 연합해 기독교 연합대학 설립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10년대 일제의 무단강점기에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을 설립한다는 일은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같은 선교회 내에서도 서울에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형 존 티 언더우드의 타이프라이터 회사의 기금과 개인적 모금, 교파연합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가능성을 구체화 시켰다. 그리고 '조선기독교대학'(연희전문학교)에 초교파적 신과를 창설하여 기독교교양교육의 금지라는 일제의 교육정책을 극복하였다.

언더우드는 지난(至難)하게 이어졌던 대학설립의 과정 속에서 오랜 육체적 피로와 마음의 상처를 감내해야 했다. 대학교의 설립을 이뤄낸 직후부터, 그는 병마와 싸워야 했고, 결국 1916년 10월 12일, 휴식 차 떠났던 고향 땅 미국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삶과 열정을 바쳤던 마지막 소명, 연희대학교의 초기 설립만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다.

이상 언더우드의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행적을 살폈으나, 실제로는 성서번역, 문서 활동, 청년운동, 여러 가지 연합활동과 각 교파의 한국선교활동 선도 등에 있어서도 언더우드의 공적은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기독교의 초기 기반, 한국 근대화 과정의 모든 근대적인 시스템에 있어 언더우드가 관여되지 않은 영역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분야는 넓고 크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의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평가와 연구이다. 그는 일찍이 한국어 문법책과 한영사전을 편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글 성서와 찬송가, 정기간행물, 그 밖의 수많은 근대적 문서를 저술하고 편찬하는데 심혈을 쏟았다. 이는 언더우드 자신의 본령

인 선교활동의 효과적 성과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선교지인 한국 문화와 한국의 전통에 대한 존중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 한국학 연구에 매진한 것 이외에도 연희전문을 국학연구의 메카로 만드는 초석을 놓았다. 또 한가지는 이른바 '선교 에큐메니즘'으로 불릴 수 있는 교파연합의 선교정신과 그 실천이다. 그는 모든 기관의 설립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존중했고, 실제로 그의 꿈은 한국에서 단일 개신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선교 초기시대 강력한 선교지 교파주의의 장벽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활동 영역 도처에서 이 정신이 발견된다. 이는 결국 현대 에큐메니즘의 가장 강력한 전통의 하나가 되고 있다. 결국 언더우드의 선교행적에서 함축되는 의의는, 첫째 선교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둘째, 교파의 이식이 아닌, 복음주의 에큐메니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유수의 선교국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선교적 영향력 또한 강력하다.

언더우드 내한 1백20주년을 맞는 즈음 그의 선교 정신과 그 의의는 한국교회의 선교현장에서 가장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할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간 혹 선교 오지에서 그 지역의 '언더우드'가 되어 '교육'과 '문화'와 '에큐메니즘'을 실천하고 있을 한국 선교사는 과연 누구인지를 가려내 보는 일이 언더우드 내한 1백20주년에 한국교회가 관심 두어야 할 역사적 계승이 아닐까 한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5년 5월호 · 통권 제147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욱

편집인 : (교회소식) 구익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5년 5월 1일